



금수강산

1

주체112(2023)
루계 제401호 월간



표지: 선경마을의 주인들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 변혁적실체로 전환되는속에 평양시 락랑구역 남사농장에 백수십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가 났다.

자기 고장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려 특색있게 건설된 마을의 주인이 된 농장원들의 기쁨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다.

조선중앙통신

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2 || 소년단기발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20 || 강선이 들끓는다

24 || 농촌진흥을 견인해간다

28 || 새해를 축하합니다

29 ||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세계

30 || 덕과 정으로 화목한 조국

34 || 증대되는 조국의 힘

일 화

35 || 위민헌신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36 || 공예 《용맹한 매》

37 || 주체사상과 민족적자존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38 || 기쁨과 슬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40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1)

46 || 전시회를 통해 본 우리 제품들

48 || 지나온 한해를 돌아켜보며

52 || 우리의 래일은 더 밝고 창창하다

54 || 새 보금자리에서 맞는 새해

56 || 여운을 남긴 장애인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

58 || 척추교정분야의 이름난 녀박사

교향소식

60 || 장천리의 새 모습

62 ||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64 || 일본이 가닿을 종착점은 어디인가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66 ||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 (2)

민족의 향기

68 || 속항기에 승배인 민족의 슬기

조선의 명산

70 || 금강산 (3)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로윤경

☎-2308800014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으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조선로동당이 10년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온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 과정에 조선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특수

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혁명원칙과 방법론, 전진방향을 확증한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 실제적전진에 토대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히며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락관을 주는 계기로 되게 하며 이를 위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의 개최를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조직문제
 3.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5.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
-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

획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계속 힘있는 발전을 이룩하여온 2022년의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우리 당의 활동과 자체강화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진전이 이룩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4차, 제5차전원회의의 결정의 완벽한 집행에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지향시키고 대내외형세의 급격하고도 준엄한 변화국면에서도 주도적이며 령활한 령도실천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으로 강력히 인도하였으며 과감하고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령도풍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자기의 향도력을 더욱 세련시키고 혁명대오의 단결된 위력을 비상히 높은 경지로 승화시키였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판건으로 되는 중요고리들을 보강하기 위한 실속있는 조치들이 실행되었으며 당의 백년, 천년미래를 담보하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이 정립되어 우리 당을 전도양양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였다.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력사적과제를 해결한것은 우리 당의 투철한 자주적대와 자위사상의 과시이며 세계정치구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견지에서 보나, 국가발전의 궤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견지에서 보나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

보고는 국방력강화와 대적투쟁에서 달성된 극적인 변화들을 분석평가하였다.

우리 국방력강화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의 강세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강대무비한 군사력을 키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인민의 크나큰 자부이다.

다사다변하고 격돌하는 국제정치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당의 국익수호, 국위제고의 기본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구상과 결단대로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대조선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보고는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이룩된 뚜렷한 성과들을 개괄하였다.

건설분야의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 화성지구와 련포지구건설에서 2022년의 투쟁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창조되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이 준공되였다.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떴고 전국의 시, 군들에 농

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역척같이 감내해 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국가의 명예와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2022년을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해로 빛내인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





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과 공화국창건 75돛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올해 목표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수행에 총매진함으로써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자고 말씀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

보고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국가창건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경향이 아직도 일부 경제일군들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있고 잠재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책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성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시 한번 1960년대, 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나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었다.

보고는 새 년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업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에로 이어지게 하는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보고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어 추진하고있는 정책적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체화하시었다.

경공업과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체제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건 실행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인기적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되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혁신방향이 명시되였다.

보고는 2022년의 투쟁과정에 교육, 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적문제들을 취급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옹기 이글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조선혁명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우리 국가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여러가지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었다.

보고에서는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이 천명되였다.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사력의 급속한 고도화와 세계유일무이의 핵법령발포로





심대한 타격을 받는데 이어 우리의 초강경대응 의지에 부딪친 후 공포와 불안속에 전전공공하면서 그 악착성과 발악상에 있어서 인류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도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 남조선과의 3각공조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있다.

남조선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무분별하고 위협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자세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보고는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것이라고 밝혔다.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핵무력강화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

또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쫓겨는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바없는 우리의 명백

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것이라고 하였다.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주체인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당 제8차대회와 중요당회의의들에서 천명된 군건설방향에 립각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과 《일당백》구호제시 60돛이 되는 2023년을 공화국무력의 정치사상적위력

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동원준비와 실전능력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보고는 온 한해 초진장의 생산돌격투쟁, 과학연구투쟁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주요국방정책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한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일군들의 헌신과 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새 년도에 점령해야 할 무장장비개발과 생산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남, 대외부문의 중심과업을 밝히었다.

국제관계구도가 《신평전》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

조되었다.

특히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 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대응방향이 천명되었으며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잡기 시작한 나라들에게도 경종을 울리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 국가 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발양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었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개선강화할 때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제도의 본태를 적극 살리고 당정책과 국가적시책들을 옹바로 집행하며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공고발전을 옹호고수해나갈수 있다.

변화발전하는 환경과 심화되는 사회주의 건설투쟁에 맞게 국가관리기구체계를 실리적으로 정비하며 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개변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도 제기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사업과 간부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당 고유의 정치풍토를 유지공고화하고 당의 전망적발전을 실속있게 담보하기 위한 중요사항들과 개선방향,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특히 해당 지역의 정치적참모부인 도당위원회와 도당책임비서들의 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기에 혁명의 각 분야 사업, 당정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도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충실성과 헌신적복무로 보답하기 위하여 맡겨진 책무리행에서 결정적인 개진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새해의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진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난국을 이겨내고 더 큰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는가를 만

천하에 힘있게 보여주자는 열렬한 호소로 3일 간에 걸친 보고를 마치시었다.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혁혁한 발전을 이룩한 2022년의 전인민적인 투쟁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변천하는 혁명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전진방향과 비약의 해법을 명확히 밝힌 총비서동지의 보고에 전체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전반적국가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에 대한 내각총리 김덕훈동지의 제의를 청취하였으며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 토론이 있었다.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방대한 2023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가 2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결정서초안에 대한 종합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새해 국가예산안심의정형을 검토하였으며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발전을 위한 중요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예산심의 조가 검토하여 제기한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다섯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었다.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사명을 걸머지고 80성상을 가까이하는 장구한 집권행로를 아로새겨온 우리 당에 있어서 시대의 변천을 직시하고 당의 실태를 투시한데 기초하여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굳건히 고수하며 령도적, 전위적역할을 비상히 강화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는것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총비서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새시대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력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조직, 사상, 령도예술건설의 혁명적진수와 내용, 고귀한 경험을 다 포함하면서도 당사업 실천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제기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한것으로 하여 제시된 지 몇달 안되는 기간에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전적인 지지찬동을 획득하였다.

당건설에 관한 리론체계를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로 새롭게 구성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고 정연하게 하는 사업이 실행되었다.

특히 전당강화의 새 전기를 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정비되고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적각성과 역할이 양양강화되고있는 것을 비롯하여 당건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심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당중앙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어 건전하고 결백한 정치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당조직들과 수백만 당원들을 가지고있으며 수천만의 인민들이 당을 백승의 향도자로, 위대한 어머니로 절대신뢰하고 일편단심 따르는것은 당강화의 믿음직한 력량으로, 역적의 기반으로 된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고 력사적행정에서 그 계승성을 확인하였으며 실현가능성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증한데 따라 새시대 5대당건설방향을 당의 로선으로 책정하는것은 조건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실하면서도 성숙된 문제로 부상하고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에 기초

한 5대방향이 우리 당의 당건설로선으로 확정되면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성격과 본태를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강화하면서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백년, 천년 다해나갈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전당의 의사가 집대성된 새시대 당건설방향을 정식 당의 로선으로 책정할것을 전원회의앞에 정중히 제의하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에 기초한 5대방향을 우리 당의 새시대 당건설로선으로 책정함에 관한 결정서가 장내를 진감하는 우렁찬 박수속에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었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직면한 난국을 견디어내고 자체를 유지보존하는데만 머무르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발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으로 나아가는 미증유의 거창한 위업이다.

새해에도 우리의 투쟁은 결코 쉽지 않은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게 될것이지만 자기 위업에 대한 굳은 확신과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요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걸음걸음 부닥치는 도전과 난국을 결연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시대로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갈것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당성과 혁명성, 헌신성에 의하여 전원회의결정들이 착실한 집행과 실제적인 변혁으로 이어지고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는 끝없이 펼쳐질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시며 폐회를 선언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예술,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전당강화와 국가부흥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줄기차게 인도하시는 존엄높은 우리당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 * *

소년단기발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 111(2022)년 12월 27일

세계에 둘도 없는 혁명적소년조직으로 명성 높은 조선소년단이 아홉번째로 되는 대회를 성대히 가지었습니다.

나는 먼저 온 나라 인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다함없는 축복속에 그 이름도 그 력사도 그 전통도 자랑높은 조선소년단을 대표하여 뜻깊은 대회에 참가한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장으로 마음달리며 크나큰 희망과 새로운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전국의 소년단원들에게도 가장 따뜻한 진정을 보냅니다.

나는 또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우리의 소년단원들을 당의 손길로 이끌어주고 애지중지 보살펴주고있는 소년단지도원, 분단지도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국의 아들딸들을 참되게 키우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청소년교양사업부문 일군들과 소년단원들의 부모들에게도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새날소년동맹이 태어난지도 장장 100년이 가까와오고 건국의 초행길에서 조선소년단이 창립된 때로부터 70여년이 흘렀지만 주체의 소년혁명조직으로서 조선소년단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는 조금도 변하

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혁명적인 구호를 내들고 긍지높은 력사를 새겨온 소년조직들이 적지 않았지만 오늘까지도 자기의 붉은 피줄기를 이어오면서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빛내어나가는 소년조직은 오직 조선소년단밖에 없습니다.

세월의 그 어떤 풍파도 당의 품속에서 자라며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는 조선의 소년혁명가들의 대오를 흐트러놓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소년단원들의 영예인 동시에 우리 당의 자랑이고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장에서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소년단원동무들이 자기 학교의 자랑도 펼쳐놓고 소년단생활의 경험도 나누며 씩씩하게 새 결의들을 다지던 때가 어제같은데 그들이 어느덧 청년동맹원으로 성장하고 그 자리에 바로 동무들이 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학생소년들이 소년단시절을 거치지만 몇해만에 한번씩 열리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함에 참가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지 않는 행운이며 영광입니다.

대표동무들은 한명한명이 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 학급동무들의 한결같은 찬성과 소년단조직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은 동무들입니다.

수백만 소년단원들가운데서 단연 손꼽히는 모범소년단원으로 선출되어 자기 조직의 강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자기 손을 들어 결정한것은 일생을 두고 추억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 기쁘며 어엿하고 튼튼한 대표동무들을 모두가 부러워하고 온 나라가 높이 쳐다보게 내세워주고 싶습니다.

우리 인민은 걸음걸음이 험치 않았던 울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즐겁게 들으면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대하여 기뻐하면서 소년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습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큰일은 후대들이 50년이건, 500년이건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존엄높고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붉은기를 억척같이 고수하고있는것도, 모진 곤난을 이겨내면서 세계최강의 무기를 만들고 발전소와 공장, 새 거

리와 새 마을을 계속 건설하는 목적도 다름아닌 후대들에게 밝은 웃음과 부림없는 행복을 안겨주고 자손만대 복락할 영원한 강국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사회주의강국이 소년단원동무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과 인민은 더 힘차게 투쟁하여 동무들이 한점 그늘없이 밝고 기운차게, 부족한것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꼭 만들어낼것입니다.

이 강대한 나라, 부흥한 나라의 주인은 바로 동무들, 우리 소년단원들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은 귀중한 사회주의강국을 튼튼히 지키고 그 앞날을 역세게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항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시절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절입니다.

사람은 첫걸음을 잘 내짚어야 한생 곧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때문에 소년단시절에 아름다운 꿈과 포부를 싹틔우고 옳바른 세계관의 기초를 다져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붉은벚타이를 매고 소년단대오에 들어서면서부터 첫 사회정치생활을 하게 되고 지식과 함께 성장에 필요한것을 하나하나

배우며 참다운 인간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게 됩니다.

대표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소년단기 앞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정직하게 내짚은 인생의 첫걸음을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나라를 받들고있는 애국자들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두번다시 없을 귀중한 시절에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여 모든 면에서 훌륭한 혁명의 교대자, 강국건설의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소년단원은 자기에 젓줄기를 물려주고 품어안아 키워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제일로 사랑하고 으뜸가게 떨쳐갈 마음과 능력을 갖추어가는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가운데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을 떠나서는 희망도 재능도 행복도 꽃피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꿈을 꾸어도 조선을 떨칠 꿈을 꾸고 공부를 해도 우리 나라를 더 크게 일떠세울 산지식을 배우라는 당의 뜻을 한마음 다해 높이 받들어가는 동무들이 많습니다.

나이보다도 생각이 먼저 자라 수령을 알고 혁명을 알고 조국을 알기 위해 애쓰고 스스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길에 자주 올라 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따라배우면서 당에 충직한 아들딸로 준비하여온 소년단원동무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우리 소년혁명가들의 첫 세대가 백두밀림에서 창조한 충실성의 전통이 맥맥히 이어지고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앞으로도 당을 열렬히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며 조선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을수 있는 믿음직한 교대자, 공산주의후비대로 억세게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동무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것은 오늘도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이 동무들의 보급자리를 짓밟고 희망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있다는것입니다.

바로 이 시각도 조국의 방선초소들에서는 인민군대가 원수놈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원수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놈들과 맞서 싸우는 심정으로 인민군대 원호에도 앞장서고 《소년》호땅크와 대포도 만들어 보내주며 만약 원수들이 덤벼든다면 전화의 소년근위대원들처럼 용맹하게 싸워 300만 조선소년단의 본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의 징표는 최우등성적증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는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만 당에 충실할수 있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수 있으며 원수놈들과도 싸워 이길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매일, 매 시각 외우며 공부하고 또 공부하여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누구나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애쓰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배워 최우등고지를 점령하여야 하며 어느 학교에서나 이름난 소년발명가, 소년박사가 나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사랑하고 환상을 즐겨하며

글짓기도 잘하고 소감도 발표할줄 알며 시도 잘 읊고 노래도 잘 부르고 체육도 잘하고 악기도 다룰줄 알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이 앞가슴에 휘날리는 붉은 넥타이는 동무들 매 한사람한사람을 정답게 품어안은 우리 당의 옷자락이나 같고 소년단조직 생활은 동무들을 걸음걸음 이끌어 당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나게 하는 혁명적교양의 학교, 혁명적단련의 용광로입니다.

소년단원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안은 정치생명인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를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본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을 통하여 당의 높은 뜻을 배우고 자기의 계급적본분을 자각하여야 하며 동무들과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헌신성,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비롯하여 훌륭한 인간의 사상정신적면모를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이라면 누구나 입단할 때 다진 선서를 항상 새겨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소년단규약의 요구대로만 생활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조직을 더없이 고마운 품, 귀중한 길동무로 여기고 조직을 사랑하며 조직규율을 잘 지키고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조직의 지도와 통제가 싫어지고 조직과 멀어지면 그것은 벌써 소년단원의 자격을 잃는 것이고 인생의 곧바른 주로에서 벗어나는것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조직의 위임분공을 제때에 수행하고 창발적인 의견도 내놓으면서 조직생활을 주인답게 해나가야 하며 조직의 비판

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조직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수양과 단련과정을 거쳐 오직 당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조국을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는 모범청년동맹원도 되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도덕품성은 학과실력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도덕이 없고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은 재능이 있어도 어디에도 쓰지 못할 존재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소년단원들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옷사람들을 존경하고 동무들을 사랑하며 어려운 일은 솔선 말아나서고 좋은것은 동무들에게 양보하는 성품을 착실히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어례절을 잘 지키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며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도덕품성이 몸에 꼭 배야 합니다.

실력과 품성은 어느 한쪽도 기울어지면 안되는 인격의 쌍기둥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이 운영하고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는 함》은 비록 작아도 나는 거기에 담겨진 아름다운 마음들을 천금보다 더 귀중히 여깁니다.

물에 빠진 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품치는 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 소행도 장하고 동무의 손에 자기 연필을 쥐어주고 학습에서 뒤떨어진 동무를 도와준 착한 마음도, 방역사업에 바쁜 약국들에 약봉투들을 정성껏 만들어 보내준 미담도 그 함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다 감동적이고 다른 동무의 소행을

집단앞에 내세우고싶어하는 그 깨끗한 진정도 더없이 소중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그렇게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상한 품성을 갖추어나가기 바랍니다.

소년단원들은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소년선전원, 소년정치활동가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적극 고무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이 되어 당의 믿음과 사랑,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대에 꼭 보답하리라고 믿습니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는 청년동맹일군들, 청소년교양과 관련된 부문의 일군들, 소년단지도원, 분단지도원들도 많이 초대되었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성장의 걸음걸음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동지들의 책임과 역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 조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혁명을 잘해도 청소년교양을 잘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귀중한 전취물들도 무용지물이 되고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첫 스승이며 정치적 보호자인 동지들의 어깨우에 우리 당이 최우선정책으로, 중차대한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청소년교양사업이 무겁게 실려 있습니다.

나는 당이 맡겨준 중요한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 소년단원들의 올바른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주는 동지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며

이 기회에 우리의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을 더 잘 키우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세대들은 새로운것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 자라고있기때문에 생각하는품이 이전세대와 다르며 연령에 따라 그 수준차이도 큼니다.

소년단원들에 대한 교양방법은 갓 입단하였을 때와 청년동맹가맹을 앞둔 때가 다르고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시기가 달라야 하며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야 합니다.

청소년교양사업은 하나의 중요한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교양을 인식발전의 합법칙성과 대상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낡은 틀, 낡은 방법에만 매여달리다보니 실지 교양다운 교양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청소년교양사업을 형식적인 틀거리나 갖추고 주먹치기로, 천편일률식으로 진행하는 편향을 극복하고 우리 학생소년들의 의식수준과 심리적특성, 현실적조건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학생교양을 위한 연구거점부터 실지 효력을 나타낼수 있게 똑똑히 꾸려놓고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결코 마음까지 어리지 않습니다.

소년단원들에 대한 교양에서 주입식을 철저히 경계하고 리치적으로 깨우쳐주는 방법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작정 가르치려들지만 말고 그들이 옳고그른것을 스스로 갈라볼수 있도록 계

발시키고 주견을 충분히 내놓게 하며 긍정적인것은 지지해주고 잘못된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교양이 소년단원들자신의것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지식과 의식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도 학생소년들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도덕교양, 집단주의교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계급교양으로 심화시켜나가는것이 순리입니다.

어려서부터 동무들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건전한 도덕품성이 체질화되면 충실성과 애국심도 자라나게 되고 계급의식도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년간 교육혁명이 일어나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된 조건에서 듣는것보다 보는것을 좋아하는 동심에 맞게 동영상편집물을 많이 만들어 보여주는것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수단과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교양효과를 보다 높일수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충실한 열매가 달리듯이 소년단원들을 알차게 키우자면 소년단조직이 강해야 합니다.

소년단조직강화에서 관건은 소년단사업의 설계가, 작전가, 집행자인 소년단지도원들의 수준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입니다.

당에서는 소년단지도원들을 교원우의 교원으로 보고있으며 그 역할에 큰 기대를 품고있습니다.

소년단지도원사업은 젊어서 한번 해볼만한 일입니다.

소년단지도원들이 일을 하자면 애로도 많고 혼자 속을 태울 때도 많겠지만 학교소년단조직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분단조

직들과 소년단원들을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학생들의 보호자이지만 학교에서는 소년단지도원이 학생들의 보호자입니다.

모든 학교 소년단지도원들이 자기의 중요한 위치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면 당에서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사상정신상태에 대하여 마음을 놓을수 있습니다.

분단강화이자 소년단강화입니다.

소년단생활은 분단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되며 소년단조직의 결정도 분단을 기본단위로 집행됩니다.

분단지도원들은 진정한 스승, 친부모가 되어 학생들에게 옳은것만을 보여주고 배워주어야 하며 분단열성자들을 비롯한 핵심들의 역할을 높이고 소년반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분단들이 경쟁적으로 영예의 붉은기학급칭호를 쟁취하면 소년단원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기둥감들로 자라나고 그만큼 분단조직도 소년단조직도 강해질것입니다.

소년단조직을 강화하자면 청년동맹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당에서는 소년단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전적으로 청년동맹에 맡기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동맹사업에서 소년단사업이 차요시되고있는데로부터 일부 소년단조직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청년동맹에 있어서 소년단조직들에 대한 지도는 자기의 교대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미래의 청년대오를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입니다.

소년단기발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소년단사업은 곧 청년동맹사업으로 됩니다. 청년동맹은 당의 사상과 방침을 소년단조직들에 알려주는 기계적인 전달자, 교양사업을 포치하고 장악하는 역할이나 할것이 아니라 알속이 있는 지도, 발전적인 결실을 만들어내는 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지지도원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이 자기 마력을 다 낼수 있게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교종별, 지역별로 새로운 기준과 본보기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조직하여 학교소년단조직들이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 소년단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찾아 대책하는데 선차적이며 집중적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와 현실적요구에 맞게 소년단조직을 잘 운영하고 그 활동을 개선하는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년단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문제, 소년단지지도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긍지감을 높여주기 위한 문제, 출판물들과 교양자료들을 소년단조직들에 제때에 충분히 보급하는데서 걸린 문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 야영과 참관 등을 실속있게 조직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걸린 고리들을 풀어야 소년단을 조직다운 조직으로 강화할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과외교양지도를 비롯하여 이미 정연한 체계가 서있는 사업에만 치중하며 현상유지를 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혁신적인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며 자기의 권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당중앙위원

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고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부에서는 청소년교양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 소년단사업에 공백이나 편향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며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과학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들이 우리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소년단사업을 주인답게 대하고 의도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청소년교양사업은 교육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실효를 보다 높일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부문 일군들속에서 지식전수일면에만 치우치면서 학생교양사업을 뒤전에 밀어놓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 조국의 미래를 키워내는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라고 할수 없습니다.

교육과 교양이 분리되면 절름발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새세대육성에서 교양을 떠난 교육, 교육을 떠난 교양이란 있을수 없으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혁명인재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준비된 인간입니다.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든 학생교양을 본업으로 삼고 교양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교장과 당세포비서, 소년단지지도원의 3자협의를 강화하고 교무행정과 소년단조직과의 배합작전을 잘하여 등교로부터 수업과 과외활동, 하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전 과정을 교양으로 일관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실정에 맞게 찾아 적용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학생교양에서 부모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

할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피를 물려주었다고 대를 이어준것이 아니며 말은 일에 책임적이고 성실하다고 하여 사회앞에, 후대앞에 지닌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일이 아무리 바빠도 교육자들과 정상적으로 련계를 가지면서 가정교양에 품을 들여 자식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똑똑히 심어주어 혁명의 명맥, 애국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가 다 학생교양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와 농장의 당조직들, 근로단체조직들도 종업원들의 자녀교양문제를 중시하고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늘 관심을 돌리며 특히 너맹조직들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학생교복을 한벌 만들고 학용품 한가지를 생산하여도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즐겨쓰는 마음을 자래울수 있게 정성을 기울이고 편집물 하나를 만들고 방영해도 아이들의 정신적성장에 주는 영향을 먼저 따져보아야 하며 누구나 아이들이 잘못하는것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전당적으로, 전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소년단사업을 중시하고 소년단원들을 사랑하며 극진히 보살펴주는것을 당풍으로, 국풍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앞에, 인민우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담차고 더 활기있게 자라야 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자루의 품이 들어도 그것

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영광으로 됩니다.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될것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의 명랑하고 씩씩한 모습을 대할 때면 혁명하는 보람과 긍지가 더해지고 동무들이 부르는 《소년단행진곡》을 들을 때면 힘이 납니다.

우리 국가가 강한것은 결코 핵무기가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소년단원동무들과 같은 교대자, 후비대들이 대바르고 충실하게 자라나 혁명가들의 대오에 항상 생신함과 약동하는 힘을 더해주기에 조선이 강한것입니다.

동무들이 오늘은 붉은넥타이를 두른 소년단원이지만 래일은 영웅메달, 박사메달을 단 강국의 기둥으로 명성떨칠것이며 동무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그때에 우리 나라는 더 아름답고 강대한 모습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릴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영광이 소년단원동무들을 부르고있습니다.

300만 소년단의 힘찬 발구름소리는 전진 또 전진, 승리 또 승리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도도한 기상입니다.

소년단원동무들이 더 웅대한 포부와 리상, 굳센 마음과 슬기로 떨쳐나가게 될 이 조선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소년단기발높이 밝아오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한 철강재증산으로 들끓고있다.

강선이 들끓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형





전세대 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그 어디에서나 이런 열의가 넘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강철직장에서부터 타올랐다.

1호초고전력전기로의 용해공들은 차지당 용해시간을 30분간이나 단축하였다.

지난 시기의 기준은 출강후 대기시간 30분, 소보수시간 30분이였다. 1호초고전력전기로작업반의 용해공들은 이 1시간을 30분으로 줄일것을 결의해나섰다.

그들은 슬라크를 걷어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지구를 만들어 출강후 소보수시간을 단축하였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탐구도입하면서 설비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하여 용해시간을 단축하였다.

철강재증산의 불길은 곧 집단적혁신의 불길이였다.

직장의 곳곳에 나붙은 《전세대가 우리를 지켜본다》, 《다음 교대를 위하여》, 《한명의 백걸음보다 백명의 한걸음이 더 귀중하다》 등의 제목의 속보들에 용해공들의 집단주의정신이 비껴있었다.

다음 교대작업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마련해주고서야 인계를 하였고 교대를 마친 후에도 더 도와줄 일이 없는가를 확인

하고 퇴근길에 오르는 그들이였다.

그런가 하면 압연직장에서는 전동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력소비량을 낮춘것을 비롯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철강재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였다.

가스발생로직장과 산소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에서도 설비들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과 부분품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철강재증산으로 조국을 만들어온 전세대의 정신은 오늘도 자랑스럽게 이어지고있다.

.....
조선의 남포시에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다.

1950년대후반기 이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전후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6만t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

농촌진흥을 결심해간다

- 금성트랙도르공장을 찾아서 -



남포시 강서구역에 자리잡고있는 금성트랙도르공장은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공장으로서 조국의 농촌 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조국의 농기계공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공장으로서 그 면모를 일신한 금성트랙토르공장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지난해 공장은 새시대 농촌혁명수행을 강력히 촉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여 공장은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공장으로 전변되게 되었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실현을 위한 능률높은 농기계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해 올해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운데 기초

하여 그 수행을 위한 사업에 총매진하고있다.

마력수가 높은 트랙토르와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들에 보내줄 목표를 세운 공장에서는 매 생산공정들의 작업능률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과학기술발전이자 곧 생산장성이라는것을 자각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선진과학기술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결과 21세기의 녹색주조기술로 불리우는 연소모형주조기술을 비롯한 선진기술들이 적극 도입되어 치수정밀도와 표면정결도가 높은 주물품들과 질 좋은 제판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농기계제작에 필요한 원료와 자



공장에서 생산된 트랙토르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사회주의농촌들에 보내어지고있다.



재의 대부분을 국내의 원료와 자재로 전환한데 맞게 그 보장대책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의 제고에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기술학습도 실속있게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맡은 설비와 기대에 완전히 정통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계발시키면서 제품의 질개선을 위한 기술혁신운동도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공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는 곧 생산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80hp트랙토르와 110hp트랙토르, 종합수확기,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은 전국의 농장들에 보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라평렬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 《금수강산》편집부는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애국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있는 해외동포여러분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삼가 엮어 401번째 《금수강산》잡지를 발행하였습니다.
잡지를 펼쳐보니 여러분의 정겨운 모습들이 먼저 떠올라 가슴설레이는 우리들입니다.
비록 서로의 뜨거운 눈길들과 따뜻한 인사말이 오고가지 못한다 해도, 끊을수 없는 혈육의 정과 사랑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다 해도 해외동포여러분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해가 바뀔수록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동포사회를 감격의 도가니로 세차게 뚫어번지게 했던 2월을 잊을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되었습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받아안던 그날 동포들은 조국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조국의 하늘가를 우리러 큰절을 올리었습니다.
동포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시책들이 속속 실현될 래일이 눈앞에 환히 보인다고 하면서 울렁이는 마음속진정을 나누었을 동포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안겨둡니다.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새겨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채택, 그것은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새로운 법의 탄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전반적국력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상응하게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응지에 떠받들려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조국이 동포들에게 보내

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에 이끌려 올해에도 동포들은 조국과 마음도 숨결도 같이하며 애국의 한길로 더 줄기차게 달려나갈것이라는것을 우리는 믿고있습니다.
지난해 동포여러분은 중국과 로씨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조국의 국가적명절들마다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였으며 태양절에는 성의껏 준비한 예술종목들을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올려 경축분위기를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우리 《금수강산》잡지편집부는 뜻깊은 올해에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비롯한 조국소식들과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며 동포여러분의 애국애족활동도 적극 소개할것입니다.
아울러 동포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에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세계

아이들을 사랑하는것은 인간의 가장 고상한 품성이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 순결한 사랑, 만사람을 감복시키는 아름답고 신성한 사랑은 없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열화같은 사랑속에 아이들의 고운 꿈과 아름다운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기 위한 사업이 최우선시되고있다.
조국의 인민들도 미처 모르고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가운데는 이런 사실도 있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두해전 12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학생교복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 신발을 만들어 공급한다는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가방, 신발을 만들어 공급하는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감격에 목이 메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일군에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서는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만은 새 교복과 가방, 신발을 무조건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또다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시는 그이의 열화와 같은 진정은 며칠후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워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 당의 정책이고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는 철의 선언이 되여 울려 퍼지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 중요당회의에서 국가적부담으로

온 나라의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정책으로, 중대조치로 취해진적이 있었던가.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자식을 더욱 따뜻이 품어안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야 할 먼길에 힘겨울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불같은 사랑으로 온 나라의 어린이들을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속에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현실이 조국땅우에 펼쳐졌고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마음껏 먹이기 위하여 수산부문에 사랑의 과업이 하달되는 감동깊은 이야기가 생겨났으며 소년단원들의 대회가 국가의 중요행사로 진행되는 승고한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어린이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이 황홀한 별세계마냥 펼쳐졌으며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 《해바라기》학용품이라는 새로운 부름들이 아이들의 친근한 길동무처럼 불리워지고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일은 설사 그것이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최종대사로, 최고의 관심사로 여기시였기에 최전연으로 가시다가도 소년단야영소가 준공을 앞두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발걸음을 돌리시였고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도 지체하시며 애육원의 마당가에서 원아들의 노래소리도 즐거움속에 들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한 손길, 뜨거운 은정속에 이 땅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재부가 끝없이 늘어나고 후대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만세소리로 하늘땅에 차넘치고있다.
하기에 온 나라 전체 청소년들은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리러 고마움의 인사, 감사의 큰절을 삼가 드리고 또 드린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덕과 정으로 화목한 조국

오늘 새해를 맞는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길에서 사상초유의 난관을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지난해를 돌이켜보고있다.

지나온 한해는 난관이 중첩되고 시련은 의연히 엄혹하였다. 하지만 이 땅에는 따뜻한 공기가 예전처럼 변함없이 흘렀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정이 공기처럼 흐르는 우리 사회,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쳐나는 덕과 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인간관계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덕과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과정에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존경과 사랑, 고마움의 감정도 가지게 된다. 뜻과 정, 의리에 사는것이 사람이며 이것을 떠나 인간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타산이나 의무감으로 결합된 인간관계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것이지만 사랑과 의리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언제나 공고하고 진실한 법이다.

누구나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이 덕과 정으로 결합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 수십년간 온갖 지성을 다 바친 사람들이며 지극한 정성으로 소생시킨 환자들에게 각종 보약재를 마련해주며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가는 의료일군들...

그리고 정든 수도를 떠나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탄원진출하는 미더운 청년들은 지난해에도 수천명을 헤아리고있다.

수천척지하막장과 용광로앞에서 한생을 바쳐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뿐 아니라 후대들까지도 보살펴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조국을 위해 자기들의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려는 진정이 깃들어있다.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우리 공장, 우리 일터...

조국의 인민들은 나와 남이라는 개념보다

우리라는 개념을 더 친숙해하며 즐겨 부른다.

아무런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고 청년들이 특류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보살펴주는것과 같은 꿈같은 현실들이 내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꽃피어나고있다.

아파하는 사람은 뜨겁게 위해주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부축해주며 힘들어하는 사람은 사심없이 도와주는 조국인민들의 인정미는 지난해 방역대전에서 기적을 안아왔다.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어 국가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 90여일간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미덕과 미풍이 더 높이 발양되고 덕과정이 더욱 뜨겁게 분출된 나날이었다. 방역대전의 나날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의약품과 방역물자, 식량, 자금 등을 방역 및 치료예방기관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가정,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었고 전국적으로 8 000여개의 각종 이동봉사대들이 조직되

였으며 3만여명의 지원자들이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의 전진공급에 참가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적극 도모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수도의 약국들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모습은 인민의 아들, 친형제로 시민들의 뇌리에 다시금 새겨지였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약품수송과 공급을 안정시키는것이였지만 모든 전투원들이 인민의 생명수호와 건강보호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전염병치료약뿐 아니라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을 구해가지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았으며 사경에 처한 환자소생을 위해 자기의 피를 수혈하고 감염될 위험성이 있지만 자기 입으로 환자의 숨길을 열어 소생시킨 사실, 공급된 전투식량을 서슴없이 덜어내어 어려운 세대들에 나누어준 소행을 비롯하여 어느것 하나 인민을 감동시키지 않은것이 없었다.

아직 조국의 인민은 생활상애로를 겪고있다.



생일을 맞는 영예군인의 집을 찾은 청년대학생들과 이웃들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어렵고 힘든 부문과 외진 산골마을과 섬마을분교로 진출하는 청년들





이것을 기회로 적대세력들은 끈질긴 제재와 저속하고 퇴폐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 조국민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 덕적품모, 온 사회에 공기처럼 흐르는 덕과 정을 말살하려고 꾀하고있다.

그러나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남을 위해 자기를 서슴없이 희생할 줄 아는 조국인민들의 인정의 세계는 절대로 허물수 없다.

그것은 이 땅에 지배하는 고상한 인간미와 순결한 룬리도덕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자신의 한생의 전부와도 같고 피와 살점과도 같은 인민을 하늘보다 더 높이 받들고 말그대로 혼심을 깡그리 다 바쳐 지켜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사랑에 대한 둘도 없는 증명은 헌신이다. 헌신이라는 이 고결한 세계속에는 자기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끝없이, 아낌없이 쏟아붓는 열과 정만이 짝 차있을뿐이다.

방역형세가 엄혹하였던 지난해 5월 15일의 그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찾으시였던 대동강구역의 약국들을 찾는 사람들은 오늘도 뜨거운 감동속에 되새겨본다. 그이께 자기들도 병을 앓고났다고, 그런데 이런 곳에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고 눈물속에 아뢰이던 판매원의 이야기를 누구나 목메이는 걱정속에 듣고 또 듣는다. 한순간이라도 그이를 몸가까이 뵈고싶어한 인민이었던만 악성병마가 휩쓸고있는 때에 그이를 만나뵈울줄을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하였다. 근심과 걱정에 휩쌓여있던 인민은 가장 가까이

와닿은 위대한 아버지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을 심장으로 느꼈으며 신심은 백배해졌다. 그이의 덕과 정은 인민을 일떠세운 불사약이 되었다.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국풍인 덕과정이 있어 조국은 지난해에 전진과 발전의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하고 영웅조선의 힘, 강용한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였다.

조국인민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고 국가부흥의 새시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 파감히 떨쳐나섰다.

덕과정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조선중앙통신



증대되는 조국의 힘

지금 조국인민은 새해의 첫 진군길에 들어섰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지난 한 해에도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승리자의 긍지와 자랑이 넘쳐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조국인민은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최악의 보건위기, 농업부문에서 가뭄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한번 크게 비약하였다.

하다면 조건과 환경이 엄혹하고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조국의 전진속도가 배가될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광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의 한 광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난관속에서의 전진이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고경찬영웅소대는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녀달 동안에 년간계획을 수행하였다. 생산조건은 날이 갈수록 엄혹하여 로력과 설비, 자재가 매우 긴장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사람이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 해제끼였다. 발파구멍을 하나 뚫어도 어떻게 하면 적은 자재로 효율을 높이겠는가를 모색하며 서로의 지혜를 합치는 과정에 단번에 많은 량의 광석을 땄을수 있는 기발한 착

상들도 나왔다. 소대안에 다음 교대를 도와 채굴장을 정리하고 착암기도 정비해주는 기풍이 차 넘치는 속에 소대적인 광물증산 성과가 나날이 확대되었다.

그 나날 그들은 자신들이 깨내는 한t한t의 광물이 곧 조국의 전진과 잇닿아있다는것을 다시금 자각하였다.

어려움이 가증될수록 오직 생산적양양을 가져오기 위해 사색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해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나가고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미더운 모습은 자립경제의 쌍기둥인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금속공업부문의 그 어느 기업소에서나 국가적립장에서 생산소비적련계를 강화하니 기간공업부문 전반이 더욱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국가적인 철강재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에네르기절약형 산소소벌용광로건설과 산소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상공사를 완강하게 진척시키였다.

지난해 11월 긴장한 강철구조물조립작업이 벌어지던 로체장에서였다.

이 작업에 앞서 기업소에서는

기중기의 팔길이가 제한된것으로 하여 시간이 많이 지체될것으로 예견하였었다. 하지만 연공작업반의 기능공들은 당김지구를 창안리용하여 단 4시간만에 제진설비조립을 끝내였다.

가장 큰 국난에 직면하여 가장 큰 용기를 발휘하며 가장 큰 승리와 영예를 안아온 전승세대의 그 정신과 기풍을 따라 배워 건설물의 질과 속도를 다 같이 보장해가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힘과 지혜에 떠받들려 용광로건설대상들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철강재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화대상공사 일정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조건보장을 앞세우면서 립체전을 들이댔으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강질을 개선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도 련속조피기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다그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몇달어간에 수십개의 생산공정을 정상운영하여 지표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토대를 구축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도 중요설비를 개조하여 전력소비를 줄이면서도 생산실적을 올려 많은 비료를 농촌들에 보내주었으며 각지 화학섬유공장, 화학공장들에서도 국산화, 재자원화 사업에 힘을 넣어 화학제품생산을 늘이였다.

전력, 기계, 건설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는 생산계획수행에만 치중하면서 질을 홀시하던 편향을 철저히 경계하고 선진기술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질제고사업에서 진전을 이룩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이 분출되는것만큼 시대가 전진하고 조국의 힘이 증대되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시키고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최대로 분출시켜나가는 이 정신력은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돌이켜보며 조국인민들은 새해에도 자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나라의 부흥발전에 맥동을 더해주는 성과를 이룩해나갈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본사기자

일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바뀌어진 설계안

주체101(2012)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중에 있는 만수교고기상점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당시 출입구앞에는 회전문이 설치되어있었는데 그것은 호텔이나 화려한 건물에 어울릴지는 몰라도 대중봉사기치인 상점에는 맞지 않는것이였다. 이것은 설계가들이 미학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면서 인민들의 편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였다.

그이께서는 이에 대하여 설계가들은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하여도 인민성을 구현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건축물의 모든 요소들을 인민들의 생활상요구에 맞으며 그들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형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기본요구이라고 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영웅거리에 고기상점을 건설하는 목적은 단순히 특색있는 건물을 세워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고기상점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건축물이 될수 있게 모든 요소들을 손님들이 리용하는데 편리하게 배치하는 원칙에서 현관부분 설계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만수교고기상점출입문설계안은 달라지게 되었다.

웃음속에 깨우쳐주신 문제

주체105(2016)년 5월 어느날 대성산기슭에 있는 자연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에 꾸려진 공룡공원에도 들리시였다.

공룡공원에는 육식공룡들을 형상한 룰동형공룡들이 전시되어있었는데 요란한 울부짖음속에 길다란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커다란 입을 놀리는 공룡들은 해당 시대의 현실을 방불하게 펼쳐보이고있었다.

그 모든것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던 그이께서 문득 한 일군에게 룰동형공룡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그에 대해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공룡의 이발을 가리키시며 웃음어린 어조로 치석관리를 잘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좌중에는 폭소가 터지였다.

육식공룡의 이발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족점을 짚막한 유모아로 단번에 깨우쳐주신 그이이시였다.

* * *

공예 《용맹한 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체99(2010)년 10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드린 선물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이 막을수 없는 흐름을 추동하는 정신력은 매개 민족이 가지고있는 민족적자존심이다.

민족적자존심이란 자기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며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이다. 지나간 력사가 말해주듯이 민족적자존심이 없이는 어느 민족도 번영할수 없고 자기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다.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혁명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으로 하여 민족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지닌 민족적자존심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여기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이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뿔수 없이 련관되어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도 실현될수 없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으로서 사람,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혁명사상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요구하는 열렬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닐것을 요구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민족적자존심과 직접 련결되어있다. 혁명실천에서 자주성은 민족적자존심에 의하여 담보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는것은 곧 민족적자존심을 파시하는것으로 된다.

자기의 민족적자존심을 건드리는것을 참을수 없는 모욕으로 감수하며 남에게 굽신거리는것을 최대의 치욕으로 여기는 사상감정이 없다면 자주

성을 유린당하여도 투쟁할수 없다.

자기 민족의 존엄을 침해하려는 사소한 요소에 대하여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것도 민족적자존심에서 우러나오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것도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이다. 매개 민족의 자주성이 얼마나 굳건히 지켜지는가 하는것은 결국 민족적자존심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데 달려있다.

주체사상과 민족적자존심

주체사상은 민족적자존심이 그 어느 민족에게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작은 나라 인민일수록 더욱 강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조선민족사에는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의존적인

정치로 하여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쓰라린 교훈이 새겨져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민족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게 된것은 봉건통치배들이 민족적자존심이 없이 외세에 굴종하고 의존하는 사대주의를 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민족적자존심이 없으면 사대주의를 하게 되고 사대주의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도 령토가 크고 인구수가 많으며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여야 민족적자존심을 내세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그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야 민족적자존심을 지닐수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적자존심이 강해야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일수 있다.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인민은 언제나 불패이며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민족적자존심은 제국주의가 주장하는 발전된 문명은 《고등인종》만이 창조할수 있다는 인종주의나 다른 민족을 깔보고 배척하는 민족배타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모든 민족은 다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민족적자존심은 민족의 운명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개척해나가도록 추동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자기의 민족적자존심을 귀중히 여길수록 다른 민족의 자존심도 존중하게 된다.

이처럼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는것은 열렬한 애국애족의 사상, 투철한 민족자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기쁨과 슬픔

(전호에서 계속)

그러나 적의 주력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악하고 끈덕지게 아군이 차지한 계선으로 그냥 기여들었다. 우리가 룡선아래로 바위돌까지 굴리면서 완강하게 진지를 고수하였지만 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을 계속하였다.

적의 공격이 조금 약화된 기회를 타서 나는 전부대에 돌격명령을 내리었다. 수립을 뒤흔드는 나팔소리와 함께 룡선을 번개같이 치달아내린 유격대원들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여 사정없이 족쳐버렸다. 몇명의 도주자를 제외한 적의 한개 중대력량은 우리의 돌격앞에서 전멸을 모면할수가 없었다. 김일룡은 육박전을 하면서도 적이 쓰러지는것을 보면 《또 한놈 넘어간다!》 하고 환성을 울리곤 하였다.

우리 유격대에서도 여러명의 전사자가 났다. 이름모를 산등성이에 전우들을 안장한 우리는 그들의 무덤앞에서 영결식을 가지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쥐고 오열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영결사를 하였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 다만 말을 끝내고 고개를 쳐들었을 때 대원들의 어깨가 세차게 떨리던 광경과 대오의 길이가 류가분방을 떠날 때보다 퍼그나 짧아진것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던 일만이 기억될뿐이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다음 나는 대렬에 다시 출발구령을 주었다. 모두가 길가에 정렬하였는데 차광수만은 무덤에 엎드려있었다. 주인없는 무덤, 칠성관 하나 깔아주지 못한 어설픈 무덤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것이다.

나는 룡선으로 뛰어올라가 차광수의 어깨를 잡아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광수! 왜 이 모양이요. 일어나지 못하겠소.》

나의 고함소리가 어떻게나 크고 모질었던지 차광수는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났다.

나는 음성을 낮추어 귀속말로 그를 타일렀다.

《대원들이 모두 우리 얼굴만 쳐다보는데... 칠전팔기의 기개는 다 어디 갔소?》

차광수는 눈물을 씻고 대렬앞장에서 묵묵히 걸음을 떼었다.

그후 나는 이때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안도-무송현경전투를 치른 후 닉달이 지나 차광수가 전사하였다는 비보를 받았을 때 맨 선참으로 내가 상기한것이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왜 차광수에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는가. 다르게 말해서 일어나게 할수는 없었을가.)

하기는 내자신도 전우들을 잃은 다음 며칠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다.

전사한 대원들은 모두가 《ㄷ.ㄷ》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의 길을 걸어온 골간이고 핵심들이었다.

희생이 없는 투쟁이란 물론 있을수 없다. 혁명은 항상 희생을 동반하는 법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평화적인 로동에서도 이러저러한 손실이 생기는 법인데 항차 모든 병기와 수단들이 총동원되어 승패를 다투는 무장투쟁에서야 어찌 죽음이 없을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안도-무송현경에서 당한 희생을 너무나도 잔혹

하고 부당한것으로 받아들였다. 혁명이 아무리 가혹한 희생을 동반한다고 해도 방금 첫시작을 뻬 우리 대오에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인 손실을 가져다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그 당시의 나의 심정이였다.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열명미만의 유생력량을 잃어버린 그닥 크지 않은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단 한번의 싸움으로 전사자가 천명도 나고 만명도 나는 현대전에서 십단위의 인명손실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우들을 잃었을 때 그 손실을 산수적으로만 계산하지 않았다. 산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를 환산하는 수단으로 될수가 없었다.

우리과 함께 투쟁의 길을 걸은 개개의 투사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비할수 없는 귀중한 존재들이였다. 유격대원 한명과 적 100명을 바꿀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신조였다. 적들은 국가의 법과 동원령을 발동하여 하루사이에도 수천수만명의 병력을 모집하여 대량적으로 싸움터에 투입할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 수단이나 강권이 없었다. 설사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 해도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은 그대로 천금맛잡이였다. 뜻을 같이하는 한사람의 동지나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한명의 전우를 얻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의 조직된 대오를 묶어 세우자면 실로 고심참담한 노력을 쏟아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비록 그것이 100명의 적을 소멸한 승리한 전투라고 해도 아군에서 한명의 희생자가 나면 그 전과를 큰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력사가들은 안도-무송현경전투를 조우전을

령활하게 반공격으로 전환시켜 한개 중대의 적을 완전히 소멸한 성공적인 전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승리한 전투였다. 이 전투의 의의는 비단 청소한 반일인민 유격대가 한개 중대의 정규군을 완전히 소멸해 버리었다는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유격투쟁사상 처음으로 천하무적을 자랑하는 일본군의 신화를 깨뜨려버렸다는 거기에 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일본군이 강한 군대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결코 무적도 아니고 불패도 아니며 불퇴도 아니라는것과 우리가 유격전의 특성에 맞는 전법으로 전투를 능숙하게 진행한다면 적은 력량을 가지고서도 강대한 일본군을 얼마든지 타승할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그러나 《ㄷ.ㄷ》의 첫 산아들을 열명 가까이 잃어버린 이 전투에서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했다.

(한개 중대의 적을 소멸하는데 열명 가까운 전우를 잃어버렸다면 조선과 만주에 있는 10만이 넘는 일제침략군을 타승하는데는 얼마만한 희생을 당해야 하겠는가!)

초연이 채 가서지지 않은 안도-무송현경의 전장을 떠날 때 나는 동지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룡선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조우전을 치르고나서 유격전쟁을 하느라면 앞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당하게 되리라는것을 한결같이 깨달았다.

안도-무송현경전투가 있는 후 우리가 십수년동안 하여온 항일전쟁은 실지로 전쟁에 대한 인간의 기존개념으로써는 도저히 측량할수 없는 고통과 난관과 희생을 동반하였다.

(끝)



조국해방전쟁승리 70년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1)

우리는 얼마전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자리잡고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다.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의 가슴속에는 세계 《최강》을 떠들며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미제를 쳐부시고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친 전승세대들에 대한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기념관의 중앙홀에 들어선 참관자들은 원수복을 입으시고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연색립상에 삼가 인사를 올리고였다.

강사 김정희는 《돌이켜보면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갖 해방된 우리 인민과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에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은 실로 힘겨운 전쟁이였고 사생결단의 싸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제



미제의 조선전쟁도발판에는 미제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침략전쟁을 도발한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을 창조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6호실로 안내하였다.

이 호실에는 조국해방전쟁 3년간의 내용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강사는 참관자들에게 당시의 환경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해방자》로 자처하며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야망밑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촌에 대한 현지도도를 예견하고계시었다. 그러나 그이의 현지도도는 실현될수 없었다. 적들이 우리측 지역으로 1~2km 까지 침입하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자》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어 적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었다.

강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인민군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38° 선 전전선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군사학적으로 볼때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으로 넘어가려면 적의 공격력량보다 몇배의 력량이 준비되어있어야 하였으나 당시 38° 선 일대에 배치되어있는 우리의 방어력량은 매우 적었으며 현대전을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인민군대가 반공격으로 넘어갈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갖 창건된 인민군대를 어느때나 적들을 맞받아 타격하여 소멸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신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진시찰을 하실 때 리용하신 승용차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6월 2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할데 대하여 연설하시는 그이의 영상사진문헌을 참관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다.

이어 참관자들은 전진선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들을 무찌르며 진격하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신문자료들, 사적물들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전쟁발발후 10여일만에 수십만명의 청장년들이 전선으로 탄원한 사진자료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러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인민군용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작전방침을 받들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6월 28일 적들이 전쟁을 도발한지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한데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해주었다.

이어 참관자들은 피에 젖고 총탄과 파편자리가 력력한 공화국기발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18련대 3대대 5중대 전투원들이 동두천과 의정부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대오의 앞에 휘날렸던 공화국기발이었다. 인민군용사들은 이 기발을 휘날리며 공화국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고

강사는 말하였다.

참관자들은 이 기발앞에서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의 모습이 어려와 발걸음을 선뜻 옮기지 못하였다.

그러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조국해방전쟁은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히 부서졌다고 하면서 그 실례를 하나하나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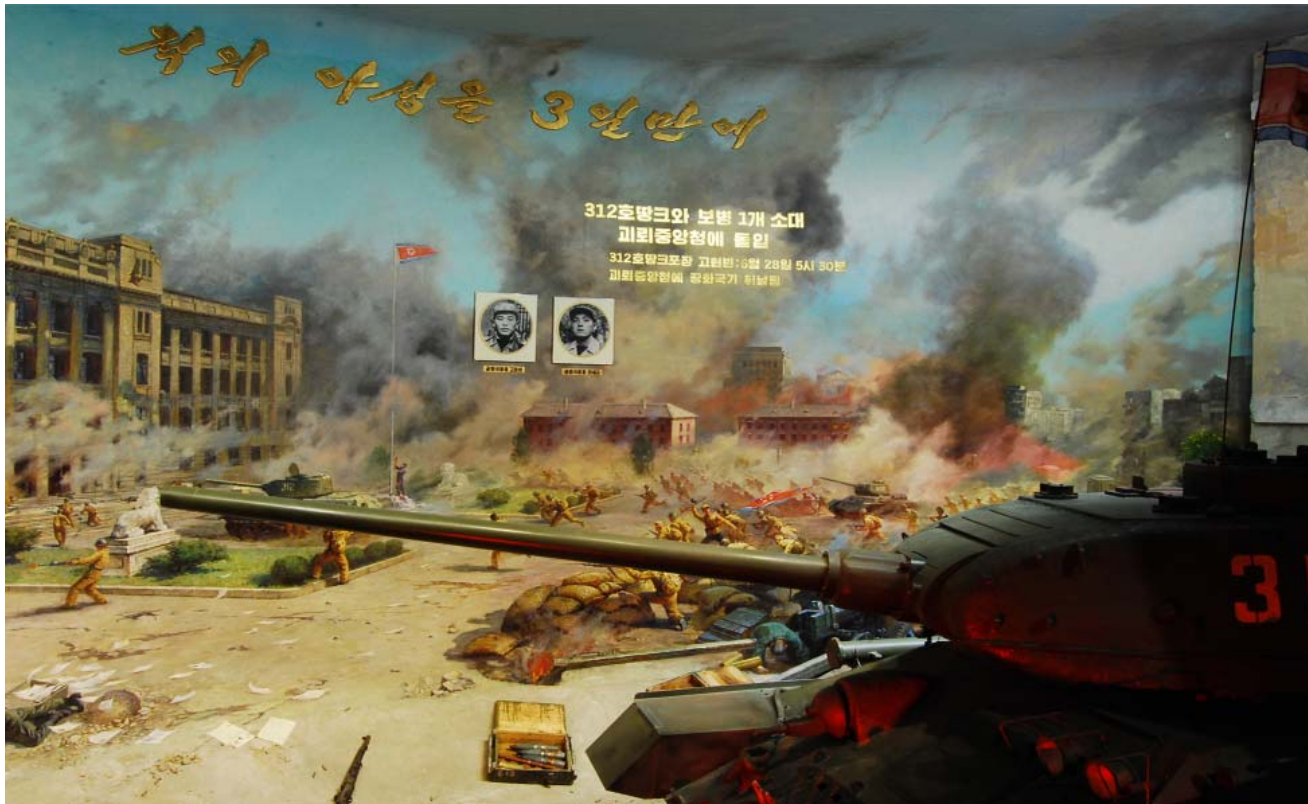
미제와의 첫 대결전인 오산 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미제침략군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 1척을 격파한 주문진해전, 현대포위전의 모범을 보여

준 대전해방전투...

그러면서 강사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시기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방침을 관철하여 공화국남반부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덧붙이었다.

참관자들은 피끓는 청춘을 다 바쳐 싸운 인민군전사들의 조국보위와 원추격멸의 정신이 어려있는 락동강도하전투사관과 그들이 리용하였던 모형때묵과 무기들, 포항의 18용사들의 랍상과 그들이 세운 위훈에 대한 사진들과 자료들을 돌아보았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을 전하는 자료들의 일부



전시회를 통해 본 우리 제품들

주제111(2022)년에 평양에서
진행된 전시회장들을 찾아서



최근 여성들의 옷차림이 이채롭다. 옷들의 색깔이 우아하고 옷형태 또한 여성들의 몸매를 잘 살려주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다.

그들의 손에 들리운 가방들은 나름대로 특색있다.

신발은 또 어떤가.

보기에도 맵시나는 가족털신들, 옷색갈에 맞게 조화를 맞춘 신발들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국내산 제품들에 대한 호평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지난해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장에서 그릇을 구입하였는데 얼마나 모양과 색깔이 고운지 세간나는 딸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합니다. 크림의 맛이 다른 공장제품들과 다릅니다.》

이처럼 최근시기 인민들의 생활령역에서 국내제품들에 대한 인기는 높아가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22》, 《여성옷전시회-2022》 등은 국내산제품에 대한 인기를 더욱 부각시켜주는 계기로 되었다.

전시회에 출품된 제품들은 조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것이였다.

출품자들은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 견고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22》만 놓고보아도 출품된 제품 하나하나에서 전

국의 신발생산자들의 질개선을 위한 고심어린 탐구의 흔적을 느낄수 있었다.

지난 시기 《날개》상표를 단 평양구두공장의 구두제품들은 인민들속에서 평이 좋았다. 그러나 최근년간 이 공장은 고충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부분의 원료들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신발을 만들기 힘들다는 타성 때문이였다. 공장에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지속되고있는 형편에서 국내의 원료로 형태도 맵시있을뿐 아니라 가볍고 가격도 낮은 겨울용남자구두를 비롯한 여러종의 신발들을 전시회에 출품하여 잃을번 한 《날개》구두의 호감도와 인기를 되살렸다.

지방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의 질도 몰라보게 개선되었다. 라선삼릉신발공장에서 만든 남자구두와 운동신은 견고할뿐 아니라 가볍고 모양도 좋아 호평을 받았는가 하면 해주신발공장에서 출품한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운동신도 편안한감을 주어 누구나 선호하고있다.

함흥구두공장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임의의 문양을 도안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다양한 색깔의 신발제품들을 출품하여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지방에서도 중앙의 공장들 못지않게 질 좋고 다양한 제품들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전시회에서는 신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강습과 과학기술성과발표회, 학술토론회들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가 긴밀해졌다.

조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여성옷전시회-2022》도 마찬가지로였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수백개

피복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한 수만점의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주목되는것은 그 많은 피복제품들의 형태가 각각이고 나이별, 직업별, 육체적특성에 따라 옷설계가 독특하며 조선여성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세련되게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조선피복공업협회 일군은 이번 전시회준비과정을 통하여 많은 피복제작자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착상력이 높아진것이 눈에 띄이게 알린다고 하였다.

조선봉화총회사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회사에서는 새 제품개발조를 조직하고 유능한 도안창작가들의 집체적지혜를 발동시키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회사에서는 새롭게 착상한 도안들이 나올 때마다 합평회를 진행하고 대중평가사업도 활발히 벌려 여성들의 미감과 지향에 맞는 도안들을 적지 않게 창작완성하였다.

이렇게 준비단계에서부터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달라붙은데로부터 피복가공기술이 현저히 올라갔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도 새 제품개발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구매자들의 마음을 틀어잡은 많은 제품들을 내놓았다.

전시회들에 참가한 생산자들은 자기 단위제품과 다른 단위의 제품을 대비해보면서 부족점을 찾게 되었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 우리의 노력으로 인민들이 선호하고 반기는 명상품, 명제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엄향심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 주제111(2022)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평양제1백화점에서 진행.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주제111(2022)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평양제1백화점에서 진행.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22》 주제111(2022)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역전백화점에서 진행.
《여성옷전시회-2022》 주제111(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며

지난해 조국땅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이며 사변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온실들과 특색있는 살림집들,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된 대농장지구-련포온실농장이 일떠섰다.

온실들과 살림집들에 넘치는 생활의 활기,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구김살없는 밝은 웃음, 약동하는 숨결이 련포땅에 차넘치였다.

조국은 결코 평온한 환경에서 이 농장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초래한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주동적이며 완벽한 봉쇄와 해마다 계속된 폭우를 동반한 태풍에 의한 피해,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압살책동...

그야말로 력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것처럼 방대한 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단력에 세계는 놀랐다.

대규모남새생산기지건설은 단순히 하나의 농장을 일떠세우는 공사가 아니라 이러한 도전을 이겨내느냐, 마느냐 하는 대결전이었다.

사실 280정보의 부지에 수경재배와 종합적인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료양온실을 가진 대규모남새생산기지 련포온실농장과 99가지 형식의 113개 호동에 달하는 1 000여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과 교육, 보건기관들, 문화후생시설들이 있는 련포온실농장마을이 230여일만에 완공되었다.



어랑천3호발전소가 준공되었다.



영양액분석체계를 비롯하여 선진적인 기술들이 도입된 농장과 1 000여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한다는것은 쉽게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더우기 수도의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과 지방의 농촌들에 대한 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간다고 생각해보면 그 공사량은 방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조국인민들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매일, 매 시각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천리도 눈앞의 지척이고 하자고 결심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조국인민들이 창조와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드림없는 신조이다.

이러한 정신력을 지니였기에 착공을 시작한지 230여일만에 련포온실농장이 준공되었고 화성지구에 1년도 안되어 1만세대규모의 거리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배려하여주신 5 500대의 농기계들이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놓을수 있었다.

지방이 도시와의 차이를 줄이며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주체111(2022)년에 김덕지구 로동계급의 기쁨은 누구보다 컸다. 먼 옛적에 은빛의 룡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신비의 전설을 안고있는 은룡덕을 비롯하여 깊은 산골에 자리잡은 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이 한해가 다르게 변모되고있기때문이다. 지금 김덕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창성이 변했소라는 노래도 있는것처럼 김덕이 변했다는 노래가 절로 나올것만 같아 마음이 흥그러

워진다.》고들 하고있다. 더우기 6월에는 강원도 김화군이 지방공업발전의 기준, 본보기로 꾸려져 온 나라를 기쁘게 하였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재자원화로 도시를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며 각종 건설용자재와 유기질복합비료 등을 생산할수 있는 오물처리공장이 건설되고 어랑천3호발전소가 준공되는 등 가는 곳마다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지난해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농촌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함경남도 신홍군에 여러동의 다층, 소총살림집들이 일떠선데 이어 황해남도 재령군 장국리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이 건설되어 면모가 일신되었다.

뿐만아니라 황해북도 연산군 공포리, 황주군 장천리를 비롯한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현대미와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농촌이 변하는 실체를 보여주었다.

농촌의 기계화를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다.

9월 군수공업부문에서 만든 5 500대에 달하는 4종의 능률높은 농기계들이 조국의 주요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공급되어 농업생산의 기계화 수준을 한계단 높인데 이어 금성트랙토르공장 개건현대화사업의 1단계목표가 완수되어 성능높은 트랙토르와 농기계들을 다량생산할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인민의 문명한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의 시책에 의하여 대성산기슭에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이 건설되어 맛 좋고 영양가높은 각종 아이스크림들이 생산되고 있다.

중첩되는 시련속에서도 세기를 주름잡으며 전면적부흥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현실을 보며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이 펼친 설계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체감하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헌신의 길을 걷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나갈 때 그 어떤 시련과 도전이 앞을 가로막아도 문명한 래일로 향해가는 조국의 진군속도는 변함이 없을것이라는것이 새해 주체112(2023)년을 맞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조선중앙통신

농촌들마다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우리의 래일은 더 밝고 창창하다

희망넘친 내 조국에 또 한돌기의 년륜이 아로새겨질 새해가 밝아왔다. 하루하루를 뚜렷한 진일보로 내짚으며 눈부신 기적을 안아온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되새기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이름할수 없는 걱정과 환희가 넘쳐난다.

그날의 그 믿음 안고

지난해는 정말 힘들었다. 조국을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과 악성비루스의 류입 등 말그대로 사상초유의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 할수 있는 엄혹한 위기를 완강히 이겨내면서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달성하였다.

대규모의 련포온실농장과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비롯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섰다.

이러한 성과속에는 우리 전력부문 근로자들의 노력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력생산자 한사람한사람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내세워주시였다.

30여년간을 한직종에서 보이라를 관리한것밖에 없는 너무도 평범한 나를 나라에서는 로력혁신자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불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바쳐가는 근로인민의 애국의 구슬땀과 순결한 량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향유의 권리보다 공민적의무를 앞에 놓고 나라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만수대언덕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시였다.

맨 앞줄에서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보니 내옆에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온 로동자들이 있었다.

그날의 그 믿음, 그 영광을 안고 우리 로동계급은 말은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나는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하여 전력생산에서 선행공정인 보이라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겠다.

더 가까이에서

지난해 조국은 가장 중대하고 위협적인 보건위기를 짧은 기간에 소거해버리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것은 우연이 가져다준것이 아니였다.

지금도 눈에 선히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몇 차례씩이나 중요 회의를 소집하시고 과학적인 방략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밤중에 우리 약국을 찾아주시었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이다.

약국에 들어서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나는 금방 병을 앓고난 뒤여서 이런 위험한 곳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고 아뢰이면서 뒤로 성큼 물러섰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나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였다. 그러시고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었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제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에게 주민들에게 이번 전염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겁을 먹을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것을 잘 해설선전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리고 떠나실 때에는 치료를 잘하라고 하시며 허리굽혀 인사하시였다.

정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시는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는 짧은 기간에 평온하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수 있었다.

더 가까이.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정치적불안정과 장기화되는 보건위기, 피난민사태 등으로 하여 전례없는 동란을 겪으며 절망의 한숨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시여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강국의 공민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우리의 래일은 더 밝고 창창하다.



평양화력발전소 열생산1직장 교대장 김명국



만년약국 판매원 김은경

새 보금자리에서 맞는 새해



새해의 첫날은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서나 환희롭고 즐겁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새해를 제일 기쁘게 맞이할 사람들은 새집의 주인들일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우리는 새해 아침 경루동으로 향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중구역 경루동 14인민반 3현관 1층 2호에 사는 평양철도국 서평양 기관차대 지도기관사인 김명원(65살)의 가정이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사선생들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명원과 그의 안해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의 손에 이끌려 방에 들어서니 세간을 낸 자식들과 손자가 모여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명절음식준비로 바쁜 며느리들의 칼도마소리가 가락맞게 울리었다.

흥그러운 분위기를 마주하고 보니 우리의 기분도 자못 즐거워졌다.

집의 벽면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벽면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었고 공훈기관사칭호증서, 국가적인 여러 대회들에 참가한 대표증들이 있었다.

《40여년간 기관사로 일한것밖에 없는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었습니다.》라고 하며 김명원은 자기의 과거사를 이야기하였다.

자강도 시중군의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철길원을 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철도일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던 그였다.

물동을 실어나르며 힘차게 달리는 기관차는 그대로 그의 가슴속에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그후 그는 기관사가 되었다.

기관차를 몰고 조국땅 방방곡곡을 누비며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체감하는것은 그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그는 일요일, 명절날이 따로 없이 물동을 실어나랐다.

그러다나니 맏아들이 태어날 때에도, 맏손자가 돌생일을

맞을 때에도 그는 운행길에 있었다.

《정말 야속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운행길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잇닿아있다는 생각으로 섭섭한 마음을 녹잡히곤 하였습니다.》라며 그의 안해는 사진첩을 펼쳐들었다.

사진첩을 보느라니 김명원의 사진은 별로 없었지만 언제나 운행길에서 남다른 보람을 찾았을 기관사의 모습이 어려왔다.

언제나 나라를 위해 깨끗한 량심을 바치며 변함없이 무사고 주행길만을 달려온 그를 나라에서는 공훈기관사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 대표로 불러주었다.

《사랑과 혜택만을 받아온 내가 지난해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살림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김명원은 말하였다. 맏아들인 김은일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관사로 일하고 있다.

드디어 명절음식들이 차려지고 자식들이 모여앉았다. 김명

원은 자식들이 올리는 축배잔을 받으며 《나라에서 안겨준 궁궐 같은 새집에서 새해를 맞게 되니 생각이 많구나. 너희들도 나라의 고마움을 잊지 말고 새해에도 더 많은 일들을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것은 한 가정의 당부만이 아니었다. 경루동의 매 가정 아니 온 나라 가정들에서 울리는 목소리였다.

이때 밖에서 초인종소리가 울리었다.

손에손에 꽃다발을 안고 그를 찾아온 승무대의 기관사, 기관조사들이 들어섰다.

《공훈기관사아바이,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몸으로 언제나 우리곁에 있어주시 바랍니다.》

그들의 방문으로 공훈기관사의 집에서는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배로 커졌다.

어찌 경루동의 집들뿐이라. 련포온실농장의 살림집을 비롯한 지방과 농촌들에 번듯하게 일떠선 새집들에서 넘쳐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여운을 남긴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되었던 2022년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가 끝난지도 한달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경기들을 자주 화제에 올리고 있다.

그만큼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는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겼다.

장애자부류와 애호가부류로 나뉘어 탁구, 정구, 사격, 활쏘기 종목으로 진행된 경기대회는 관중들의 호기심과 기대속에 인기를 모았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된 탁구 경기가 그러했다.

경기는 60살 이상 애호가들의 단체전을 1부류로, 20살-59살의 장애자 및 애호가들의 단체전을 2부류로, 장애자개인전을 3부류로 진행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1부류 결승경기였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하여 경기속도가 뜸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선수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청년들도 무색케 할 패기로 경기를 운영하였다.

선수들이 점수를 한점 한점 올릴 때마다, 영낙없이 놓쳤구나 하는 공도 이악하게 받아칠 때마다 관람자들은 감탄과 환호를 터쳐올렸다.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3부류 결승 경기였다.

경기에는 국내외 경기들에서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기록한 장애자 김영록(양쪽팔굽절단자-TT7부류)과 신진신수인 장애자 서광남(왼쪽 다리 무릎아래절단자-TT9부류)이 출전하였다.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아츠러운 슐림소리와 둔중한 발구름소리, 오고가며 링기는 탁구공소리가 관람자들의 가슴을 조였다.

긴장하게 진행된 결승경기에서 회전점수 3:1로 김영록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육체적 한계를 이겨내는 강한 도전정신과 훌륭한 경기장면을 보여준 두 선수에게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공격방향을 수시로 변화시키면서 경기를 진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장면들의 일부

행하는 애호가들의 경기도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그들은 회전공에 대한 강한 걸어치기와 밀어치기, 순간타격 등 높은 탁구 기술들을 경기마다에 펼쳐놓았다.

그런가 하면 메아리사격관에서 진행된 사격, 활쏘기 경기는 선수들의 능란한 사격술과 활쏘기 기술로 하여 이채를 띠었다.

사격 경기는 애호가 남자 25m권총사격, 애호가 여자 50m보총사격, 장애자 남, 녀 50m보총사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선수들은 침착하고 안정된 자세, 높은 집중력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부류 결승경기에서 오현일 선수는 제일 높은 점수로 1위를 쟁취하였으며 예선단계에서는 비록 9위, 6위를 했지만 신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한 김주성, 리영광 선수들이 각각 2, 3위를 하였다.

여자경기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이루어져 경기분위기를 돋구어주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일군은 지난 시기 봄과 가을에 한번씩 진행하던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

가 주체108(2019)년부터 그 규모와 종목이 늘어났는데 해마다 참가자수도 늘어나고 체육열기도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사회의 한 성원이 되어 다양한 체육활동을 벌리는 장애자들과 년로한 몸으로 체육경기에 참가한 애호가들의 모습은 관람자들과 근로자들 모두에게 정신과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본사기자 김슬기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척추교정분야의 이름난 녀박사

평양의학대학 척추 및 어린이 행동발달장애치료연구소 척추교정치료연구실 부실장 정성영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척추박사》라고 부른다.

한것은 그가 박사학위를 받는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각종 척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막히는것이 없어 그의 치료를 받고 나면 운신조차 힘들어하던 환자들이 기적과도 같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때문이다.

그가 지닌 높은 의술과 해박한 지식은 꾸준한 사색과 탐구, 지칠줄 모르는 정열이 낳은 결실이다.

어릴 때부터 이악하기로 소문난 그는 평양의학대학시절에 수재로 두각을 나타냈다. 높은 학열을 지닌 그는 박사원시기 회복치료분야에서 림상적의의가 큰 논문을 발표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사원을 졸업하고 자신감에 넘쳐 평양의학대학병원 회복치료과(당시)에 배치되어 각이한 척추질환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림상실천에 들어가게 되니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다는것을 그는 절감하게 되었다.

그는 분발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루종일 치료사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밤새워 척추질환치료와 관련한 각종

참고서들을 탐독하였으며 떠오르는 착상을 연구해보기도 하였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울때에도 그의 탐구의 자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이런 그였기에 천골-후두골 교정치료를 운동요법과 배합하여 완치률을 90%이상 보장할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여 30대에 박사학위를 받을수 있었다. 종전에는 수술로써 치료할수 있던 여러 척추질환들을 교정치료로도 얼마든지 완치시킬수 있다는것을 론증한 그의 연구논문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로론회-2018》을 비롯한 여러 학술로론회들에 척추질환치료에 관한 40여건의 소논문과 5건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나라의 의학과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주체107(2018)년에 진행된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로론회에 참가하였던 척추신경외과전문가인 재미교포 박기범은 《경추증을 력학적보상관계에 의한 척추교정으로 치료할수 있다는 정성영의 연구논문은 척추질환치료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진전이다. 정말 훌륭

한 논문이다.》라고 평하였다.

그는 성과에 자만을 몰랐다. 또다시 그는 척추교정치료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척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수십건의 프로그램들과 치료기구들을 창안 제작하여 여러 차례의 과학기술축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척추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따르는 약물치료와 온열치료, 수술치료, 광천치료법 등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치료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수 있게 하였다.

현재 정성영부실장이 이룩한 성과들은 환자치료에 이바지되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고있다.

얼마전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침상에 매인 몸이었던 평양시 중구역 서창동에서 살고있는 남승일도 정성영부실장의 교정치료를 받고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다.

정성영부실장은 제손으로 완쾌시킨 환자들을 바래올때마다 가슴에 빛나는 박사휘장의 진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며 마음의 신들메를 조이군 한다.

본사기자 김지성

조선의 국주



평양소주



장천리의 새 모습

황해북도 황주군 장천리는 황주긴등벌이 있는 곳에 자리잡고있다. 이와 함께 황주천과 석산천 등을 끼고있어 물자원도 풍부하다.

장천리라는 이름도 긴 내가 흐르는 고장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해방전 이 고장은 관계체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빈번히 가물피해를 입곤 하였고 뼈심들여 일했어도 쪽정이농사를 짓기가 일쑤였다. 이것은 이 고장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였다.

제7인민반에서 살고있는 86살 난 김정수로인의 말에 의하면 그때 장천리에 있는 집들이란 초라하기 그지없는 초가집들이 대다수였고 교육과 보건시설같은것은 전혀 찾아볼수도 없었다.

그런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타고장으로, 타국으로 살길을 찾아 떠났다. 그

들속에는 부모를 따라 중국 길림성으로 간 그의 사촌형인 김정인동포도 있다.

그러했던 장천리가 어제날의 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었다. 해방후 농촌정리의 수리화가 성과적으로 진척되어 그 어떤 왕가물도 극복할수 있는 정연한 토대가 구축되게 되었으며 농업생산의 지속적발전을 담보하고있다. 특히 조국에서 펼쳐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목표에 의해 지난해에는 천지개벽이 되었다.

특색있게 설계된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고 문화회관, 진료소, 약국, 탁아소 등 문화정서생활기지와 보건시설들도 보다 훌륭히 개건되어 리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하기에 이 고장을 찾는 사람들은 한쪽의 그림같은 장천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새집들이하는 날 장천리를 찾아왔던 제18인민반 15호동 2층 1호에 입사한 계춘광농장원의 가시어머니 최춘실녀성은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창고를 비롯하여 생활상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조건이 갖추어져있는 살림집을 보며 자식

들이 좋은 집에서 살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면 서 며칠밤을 뜬눈으로 새웠다고 하였다.

군사복무를 잘하여 표창휴가를 왔던 자식이 자기 집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무상으로 받아안은 새집에서 환갑상을 받던 날 나라의 혜택이 하도 고마워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는 로인의 말 등 장천리사람들의 기쁨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나 울려나왔다.

장천리의 변모는 비단 이뿐이 아니였다.

전야마다에서는 농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과학농사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속에 선진영농방법들이 적극 도입되어 농산작업의 과학화실현에서도 좋은 결실을 보고있다. 이외에도 논관양어를 장려하여 해마다 많은 량의 물고기를 생산하고있으며 태양열온실과 버섯재배장에서 사철 거두어들이는 갖가지 남새와 버섯은 이 고장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해지게 하고있다.

참으로 다각적으로 변모되어가는 장천리이다.

그 옛날 지나가는 길손에게 물대접도 못했던 장천리사람들, 지지리도 가난하여 태를 묻은 고향땅을 떠나야만 했던 그들이 오늘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지금 장천리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고향땅에 펼쳐진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가슴에 안고 조국의 고마움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새해농사차비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본사편집부는 주체111(2022)년 12월 4일부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던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오규상의 수기를 아래에 전재한다.

올해 12월 2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70돛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재일동포들이 누리는 존엄과 긍지, 모든 영예와 행복은 70년전 이날의 역사적 사변과 잇닿아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아가 갈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여 생사기로에 있던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헤아려보시고 현명한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주체의 첫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무어주시었습니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나는 오랜 기간 재일조선인운동력사를 연구해온 한사람으로서 사대와 교조, 민족허무주의의 진탕에 깊숙이 빠져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재일조선인운동이 어떻게 자주의 궤도에 올라서고 주체적인 해외교포운

나는 한때 사업상관계로 총련의 초대장이었던 한덕수동지로부터 총련의 역사에 대해 자주 들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총련이 결성되기 전야의 일들을 회고할 때마다 《그때 우리가 위대한 주석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련락원을 파견한것은 말이요.》하고 말뚝지를 때군 하던 한의장동지의 모습입니다.

그가 말해주던 당시의 상황이 지금도 눈앞에 방불히 펼쳐집니다.

조국이 해방된 후 재일동포들의 마음과 마음은 오직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로만 달리고 있었습니다.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수난의 그 세월 산설고 물설은 바다건너 이역땅에 끌려가 민

동의 시원이 어떻게 마련되게 되였는가를 세상에 전하고싶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련락원이 평양으로 가다

죽적존엄과 삶의 권리마저 빼앗겼던 력사의 비참한 수난자들에게 있어서 절세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은 운명의 구세주이셨습니다.

일본에 있던 애국적인 조선인활동가들과 동포들은 조국해방의 환희속에 그해 10월 도쿄히비야공회당에서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의 결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조련은 위대한 주석님의 건국로선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재일동포들의 애국조직이었으며 각계각층 동포들을 망라하고 그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해외교포조직이었습니다.

조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주석님의 령도파

라 내외반동들의 탄압과 파괴책동을 짓부시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있는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건국사업으로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우리 재일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체35(1946)년 12월 13일 력사적인 첫 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어 동포들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체37(1948)년 9월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재일동포들을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뿔뿔이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재생의 은인으로 높이 모신 우리 재일동포들은 온갖 시련과 우여곡절속에서도 주석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갔습니다.

조련의 애국적활동을 눈에 든가시처럼 여기면서 온갖 탄압과 모략책동을 일삼던 미일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앞두고 《단체등규정령》 위반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구실로 조련을 강제해산하고 28명의 핵심적인 일군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야수적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조련의 해산과 조선전쟁의 발발은 애국적인 재일조선인활동가들과 동포들의 앞길에

엄혹한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후 조련을 대신하여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결성되었지만 그 지도권을 장악한 종파사대주의자들과 민족허무주의자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일본에서 벌여지고있는 민주화투쟁의 한 고리로 보면서 재일동포들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 일본의 반동적인 국가정권타도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지어 이자들은 제주도에서 공화국기가 휘날린다고 해도 재일동포들의 처지는 달라질것이 없다고 께치면서 조직강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호방위》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망동까지 부리였습니다. 하여 수많은 동포들이 남의 지휘봉에 따라 머리에 붉은 수건을 동여매고 인화병과 죽창을 휘두르면서 극좌적이며 무모한 폭력투쟁에 내몰리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일본에서 강제추방되었으며 지어 억울한 죽음까지 당하였습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당시 재일조선인운동과 우리 동포들이 처한 형편은 참담하였고 그것을 바로잡을 이렇다할 방책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천길낭떠러지끝에 다달은 엄혹한 현실에서 솟구칠 방도를 내놓지 못하였고 또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애국적활동가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자면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사실그대로 실태를 보고드리고 가르치심을 받는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련락원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떼무리들을 상대로 판가리싸움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주석님께 기쁨의 보고가 아니라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였다는 자책감으로 가슴이 못견디게 미여져왔지만 다른 방도는 없었던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한덕수동지는 도쿄도 이따바시구에 자리잡은 목조건물에서 위대한 주석님께 드리는 편지를 밤을 밝혀 썼고 그가 파견한 련락원이 일본에서 홍콩, 상해, 베이징을 거쳐 조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나날 수많은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복두칠성을 바라보며 적후천리 밀림속을 헤쳐 최고사령부를 찾아간것처럼 우리 재일동포들도 이역만리에서 위대한 주석님을 그리며 주석님께 운명을 의탁하려 한것입니다.

련락원은 비록 한사람이었지만 그날의 평양행은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전체 재일동포들이 오른 신념의 길이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일본이 가닿을 종착점은 어디인가



지난해 로씨야의 무성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론평을 발표하여 신나치즘과의 투쟁을 반대해나선 서방나라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유엔총회회의에서 로씨야가 제출한 결의안 《나치즘과 신나치즘을 영웅화하고 현대판인종주의와 인종차별, 배척주의 등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105개 나라가 지지한 반면에 유럽동맹성원국들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반대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도이칠란드와 일본의 립장은 특별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였다.

론평은 20세기 이 나라들의 력사에 있었던 어두운 페이지를 고려할 때 두 나라가 위험한 경향을 묵과하고있는것은 서방집단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로씨야가 제출한 결의안들을 반대한 나라들의 경향을 묵인하고있는것은 결코 놀라운것이 아니다. 다름아닌 일본이라는 나라자체가 20세기에 수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그것을 거부하고 미화분식하고 있는 전범국, 파렴치한 국가이기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일본의 호전적인 군국주의후예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이미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한 일본은 교전권, 참전권은 물론 군대보유의 권리까지 가지려고 획책하고있으며 군사적공격능력보유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오래전부터 《자위대》의 무력증강에 매달려왔으며 그 실전능력을 높이고 공격형의 침략무력, 재침무력으로 완비하기 위해 허울만 남은 《평화헌법》마저 야금야금 뜯어고치였다.

지난해에도 일본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립시각료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 3개 문서를 끝끝내 결정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는 적의 미싸일기지 등을 타격하는 반격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명기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자기 나라의 령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만 방어한다는 소위 《전수방위》의 원

칙을 스스로 쥘버리였다.

일본의 무분별한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사상최고액수의 군사비를 탕진하며 새로운 군사장비개발과 구입, 우주작전과 전자전에 대처한 새로운 부대발족과 해외파병, 군사연습에 열을 올리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공화국을 걸고들며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해보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은 2022년 방위백서에서 2021년에 이어 또다시 공화국을 저들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걸고들었다.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대상》,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전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으로 몰아댔다.

이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뻔뻔스러운 행태로서 저들이 벌리고있는 군국주의적망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

오늘날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무분별한 군사대국화책동으로 지역정세를 침예한 상황으로 몰아

가는 주범은 다름아닌 일본이다.

내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15패망일을 참배날로 정해놓고 군국주의망령이 배회하는 야스구니진자에 무리로 찾아가 참배놀음을 일삼고있으며 새세대들에게 군국주의력사관과 복수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해 중학교 교과서들에서 저들의 침략력사를 전면외곡하거나 대폭축소, 미화분식하였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본이기에 신나치즘과의 투쟁과 관련한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반대한 서방나라들을 비호두둔하고있는것이다.

인류는 과거 일본이 조선민족과 아시아인민들,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얼마나 막대한 후과를 끼쳤는가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벌써 오래전에 유럽의 신나치스분자들도 무색케 하는 군국주의광신자들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 일본의 전쟁마차는 제동이 풀린채 무덤길로 질주하고 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조선속담

무 분 별

- 닭알로 바위치기
도저히 승산이 없는것에 함부로 맞서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 모기보고 칼빼기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놓고 너무도 큰 대책을 세우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 소등에 못실은 짐 버룩등에 실을가
어림도 없는 엄청난짓을 하려고 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 미친개 물 본듯
미친개가 물을 보면 발작적으로 발광하는데서 무엇을 보고 미친듯이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 속병에 고약
속에 병이 들었는데 고약을 바른다는 뜻으로서 당치 않은 처사를 이르는 말이다.

* * *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 (2)

고구려가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우리 나라 삼국시기의 역사발전을 주도하여온 천년강국으로 등장할수 있는 요인은 고구려인들이 지녔던 높은 애국심과 함께 상무기풍을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어려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되고 무술을 배우는것을 남자들의 의무로 여긴 고구려인민들은 일상적으로 달리기와 말타기, 활쏘기와 칼쓰기를 배웠다.

그런데로부터 그들은 그 어떤 침략자들이 달려들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맞서 싸웠다.

옛 기록에 《주몽이래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습하여 마침내 그 풍습이 상무적인것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것이나 해마다 음력 3월 3일이면 락랑 언덕에서 사냥경기를 진행하여 우승한 사람을 높이 등용하였다는 사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 그려져있는 말을 타고 산밭을 주름잡으며 범을 비롯한 짐승들을 사냥하는 장면, 말타고 활쏘기경기를 하는 장면, 씨름, 수박희장면 등은 고구려인민들의 상무기풍과 높은 무술수준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고구려 사회에 지배 하였던 높은 상무기풍은 필연적으로

군사력의 강화를 가져왔으며 고구려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동방의 강국으로 되게 하였다.

수십, 수백만에 달하는 외래 침략자들의 고구려에로의 침입은 고구려말기까지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앞에서 쓰디쓴 패배만을 거듭하였다.

고구려인민들은 이 강력한 군사력을 믿음직한 경제력으로 담보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령역이 넓어진 조건에서 농업을 발전시켜 벼, 보리, 조, 콩 등의 알곡작물과 공예작물의 생산을 늘이였으며 광활한 초원과 산간지대를 리용하여 목축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였다. 긴 해안선과 많은 강, 호수를 가지고있는데 맞게 수산업도 발전시키였다. 이와 함께 제철, 제강업과 금, 은, 동 등의 채취와 제련, 가공기술을 높이고 도자기 등 요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였다.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은 교통의 발전으로 이어져 도로망과 수상교통망 등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지방들사이의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지역간의 행정적, 군사적연계가 긴밀히 보장되게 되었다. 대외상업도 큰 규모로 진행되였다.

고구려는 과학과 기술, 미술, 문학, 음악과 무용 등 문화분야에서도 우수한 유산들을 많이 남겨놓았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꼽는것이 고구려무덤벽화이다.

최근시기까지 조사발굴된 고구려무덤벽화는 100여기에 달한다.

그것은 주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과 중국 길림성 집안 일대, 그밖에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지방에 집중분포되어있다.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의 선명한 색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것으로 하여 고구려무덤벽화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널리 자랑떨치고있다.

고구려무덤벽화는 그 주제내용에 따라 대체로 인물풍속도, 인물풍속도 및 사신도, 사신도, 장식무늬 등으로 나눌수 있다.

인물풍속도무덤으로서 대표적인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과 덕흥리벽화무덤 등을 들수 있다.

고구려무덤벽화에는 또한 동서남북의 4개 방위를 지켜주는 신(사신)을 주제로 하는 사신도가 있다.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무덤가운데서 대표적인것

은 남포시 강서구역의 강서큰무덤, 강서중무덤, 평양시 삼석구역에 있는 호남리사신무덤, 길림성 집안사신무덤, 집안다섯무덤중의 4호, 5호무덤 등을 들수 있다.

이가운데서도 강서큰무덤과 강서중무덤의 사신도는 독특하고 우수한 고구려회화술의 최고수준을 보여주는 작품들로서 중세세계미술사에서 동방사신도를 대표하는 대걸작품의 하나로 높이 평가되고있다.

고구려무덤벽화에는 인물풍속도와 사신도가 결합된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무덤들로는 평양시 대성구역의 개마무덤, 력포구역 룡산리의 진파리4호무덤,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벽화무덤 등을 들수 있다.

장식무늬도 고구려무덤벽화의 한 종류에 속한다.

장식무늬벽화무덤 으로서는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동명왕릉, 집안의 산련화무덤, 거북잔등무늬무덤, 동근(고리)무늬무덤, 장천2호무덤 등이 있다.

고구려무덤벽화들은 주제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며 고구려인민들의 씩씩하고 용감한 성품과 락천적이면서도 소박한 풍모,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상, 고유한 생활풍습을 잘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

란 문화사적의의를 가지고있으며 중세 세계회화사에도 무시할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고구려인민들이 남긴 문화유산가운데는 고구려의 높은 천문학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석각천문도도 있다.

5세기말-6세기초에 만든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세로 약 2m, 가로 약 1.2m의 돌판우에 새겨놓은 별자리그림)에는 당시 평양의 밤하늘에서 볼수 있었던 근 1500개의 별들을 하나의 원안에 282개의 별자리들로 갈라서 표시하였는데 이것을 먹으로 종이에 떠서 만든 항성표(별그림)를 천문관측과 력서편찬에서 기초자료로 리용하였다.

하지만 이 석각천문도는 고구려말 반침략투쟁시기에 류실되였다. 그후 돌판에 종이를 대고 복사해두었던것이 조선봉건왕조초기에 한장 발견되였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이것을 대본으로 하여 14세기말에 천문학적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을 가하여 만든것인데 지금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

고구려인민들은 이밖에도 리두식표기법을 발전시키고 여러가지 현실주제의 문학작품, 미술작품, 조각과 공예작품 등을 비롯하여 훌륭한 문화유산들을 후세에 남기였다.

고구려인민들은 생활풍습에서도 고조선인민들의 미풍량속을 계승발전시켜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중세동방의 천년강국으로서 삼국시기 우리나라 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참으로 크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강세권





 조선의 명산

금강산 (3)

- 해금강 -

해금강은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으로부터 영랑호와 감호, 화진포까지의 외금강동쪽에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와 해안 및 바다절경을 포괄한다. 넓은 의미에서 통천군의 총석정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해금강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바다에 옮겨놓은것 같다고 하여 해금강으로 불려왔으며 크게 삼일포구역, 해금강구역으로 나눈다.

삼일포구역은 남강하류연안의 삼일포와 동구암, 서구암일대의 명소들을 포괄하고있다.

이 구역에는 예로부터 호수 경치에서 전국적으로 으뜸가

는 곳으로, 금강산에서 호수 경치로 이채를 띠는 관동8경의 하나로 소문난 삼일포가 있다.

삼일포라는 지명은 옛날 어떤 왕이 하루동안 놀려고 왔다가 경치가 하도 좋아 3일동안 놀고갔다는데로부터 유래된 이름이다.

호수는 두리에 국지봉을 비롯한 36개의 크고작은 봉우리



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있으며 그안에 수정같이 맑은 호수물이 잔잔하게 고여있고 그우에 떠있는듯한 섬들과 소나무숲과 참대숲이 하나로 어울려 한쪽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다. 산우에서 보면 바다가의 호수로 보이지만 호수안에서 보면 심산속의 호수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삼일포에는 이 일대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 장군대와 여러 명소들이 있다.

삼일포의 북서쪽기슭에 펼쳐진 백사장은 이곳에서 가장 좋은 휴식터이다. 백사장뒤쪽에는 잔디밭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있으며 맑은 샘도 있다.

몽천웃쪽에는 금강산의 여러 금강문가운데서도 손꼽히는것으로 알려진 삼일포의 금강문이 있다. 이 문을 나서면 삼일포의 솔바위섬과 해금강의 작은 섬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해금강구역은 수원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남강어구 대봉섬을 거쳐 화진포에 이르는 사이의 바다명승을 포괄하고있다.

여기에는 해만물상, 영랑호와 현종암, 감호를 비롯한 명소들이 있다.

수원단의 남쪽해안에 들어서면 온갖 만물의 모양을 닮은 기암괴석이 있는데 이곳을 외금강의 만물상과 비겨 해만물상이라고 한다.

삼일포는 원래 조선통해의 작은 만이었던것이 남강어구의 삼각주가 바다 쪽으로 늘어나면서 만어구를 막아 이루어진 바다자리호수이다.

그후 만어구가 완전히 막히지 않아 바다물이 나들던 물길을 막고 운정천의 물을 끌어들이게 하여 민물호수로 변화하였다.

호수의 면적은 0.78km², 둘레 6.5km, 길이 2km, 너비 0.4km이다.

삼일포는 호수경치에서 으뜸가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있으며 금강산에서 호수경치로 이체를 띠는 곳이다.



해만물상



특히 그 생김새도 곱거니와 허리와 절정에 몇그루의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있는 립석(선돌)의 모습은 명승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준다.

이곳을 지나면 옛날 《영랑》이라는 《신선》이 놀고갔다고 하여 영랑호라고 불리우는 바다자리호수를 보게 된다. 반달모양으로 휘여든 호수주변에는 소나무가 우거지고 해당화 붉게 핀 백사장이 있는가 하면 단암, 단혈을 비롯한 기묘

한 바위들이 자기의 특색을 살리고있다.

감호 역시 그리 크지 않은 바다자리호수이지만 예로부터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들과 겨루는 명승지로 알려져있다.

이와 같이 해금강은 봉우리의 미, 푸른 바다와 바다기슭의 미, 호수의 미, 절벽의 미를 다 지니고있는 명승중의 명승이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철성



오랜 세월 비바람에 의하여 깎이고 파도에 씻기어 다듬어져 기묘하고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고있는 해금강분은 학술적으로, 풍치적으로 의의가 있어 주체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다. 해금강분의 주변에는 천래만상의 경치들이 펼쳐져있다. 하기에 오래전부터 조국인민들은 해금강에 들어서는 문어구와 같다고 하여 해금강문이라고 하였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